

개혁신학의 전통과 유산

(김재성 지음)

발제자 : 최정균 목사(갈보리교회)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쓰여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시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다. 성경 본문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공격들이 있어왔고, 이에 대응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밝히는 과정을 통해 성경이 쓰여 지기도 하였다. 교회사를 통해 개혁신학이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배경도 역시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각 시대마다 신조 내지는 신앙고백서를 작성 반포하였는데, 이는 성경의 특정한 주제에 대한 왜곡된 해석들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사수하고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경의 주제들은 방대하기 때문에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특정한 주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반복적으로 논쟁들이 이어져왔고, 이를 통해 방대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체계가 형성되고 계승되며 발전되어 온 것이다.

1. 신앙고백적 칼빈주의의 태동과 특징

칼빈주의 서론

참되고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밝혀냄으로써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성경은 방대하고 오묘하며 인간은 연약하며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참된 의미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오류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성경으로부터 참되고 순수한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힘입어 끊임없이 오류들을 쫓아내고 진리의 완전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러한 계속되는 담금질과 정제(精製)의 과정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가장 성경적으로 요약한 체계’가 바로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체계이다.

칼빈주의라는 용어는 사실상 ‘칼빈을 영웅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낮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¹⁾ 또한 종교개혁 시대에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나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일이 흔한 일이었다. 각 지도자들은 문자 그대로 성경에 관한 진리를 다시 형성(re-form)하고, 그 진리의 체계를 확립하여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려는 운동을 이끌었다.²⁾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초기 종교 개혁시대부터 등장하였고, 프로테스탄트 내에서 루터파나 재세례파와 같은 그룹들과의 차이점과 같듯이 노정되면서 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왔다.

윌리엄 스탠포드 리드(William Stanford Reid) 교수는 “개혁주의라는 용어는 루터파와 재세례파로부터 칼빈주의자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서, 쾰른이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정립한 신학과 성경 주석을 통해서 발전시킨 개신교 신학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 지역적으로 보면, 스위스와 독일 남부에서 발전된 신학을 일컬어서 개혁 신학 또는 개혁주의라고 함으로써 독일 개혁 신학과 스위스 개혁 신학이 그 양대 줄기를 형성하였다. 독일 개혁 신학은 스트라스부르그와 팔라틴 개혁 주의로 좀 더 세분될 수 있으며, 스위스 개혁 신학도 취리히와 제네바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개혁주의의 체계화를 주도한 인물

1) 김재성, 28.

2) 김재성, 30.

중심으로 보면, “16세기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취리히의 쾰링과 볼링거,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셔와 피터 마터 버미글리, 제네바의 파렐, 칼빈, 베자, 프랑수아 뒤르땡 그리고 야만두스 플라누스 등이 저술하고 시행한 것들과 그들이 작성한 신앙 고백을 개혁주의라고 부른다.”³⁾

개혁주의 선진들은 당대에 고민하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발견하여 정리하고 고백적인 선언으로 신조나 신앙고백 또는 요리문답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문서화함으로써 개혁주의가 믿는 바를 선언하고, 교육하여 그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이는 후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⁴⁾ 이러한 유산들은 기독교 신앙을 규정하는 기초적이며 고전적인 문서 네 가지⁵⁾와 개혁주의의 주요한 문서 아홉 가지⁶⁾로 구성되어 있다.

개혁신학의 교리 체계와 특징

김재성 교수는 칼빈주의를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의한다. “칼빈주의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16세기 종교 개혁의 정신을 물려받은 개혁 신학이요,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자는 의미에서 개혁주의이며, 교회 정치 제도의 특색으로는 장로교회이고, 그리고 신학 체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중심의 신학이다.”⁷⁾

칼빈주의는 초대교회와 속사도 시대를 거치면서 확립된 기독교의 기초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여타 기독교 신앙 체계와 동질성을 가지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신앙 체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알미니우스의 반펠라기우스적인 구원론의 오류를 시정하고 돌트 신경을 통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단독 사역(divine monergism)으로 집약시킨'⁸⁾ 칼빈주의 5대 교리(TULIP)라는 개혁 신학의 독특한 교리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하나님 중심의 신학(God-centered theology)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뿌리에 해당하는 교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과 영화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교리이다.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가장 독특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이다.⁹⁾ 예정론을 기독교 신학에서 심각하게 다룬 최초의 학자는 어거스틴이었으며, 개혁 신학은 이를 충실히 인정하며 따르고 있다. 그러나 예정론은 워필드 박사에 따르면 칼빈주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교리도 아니요, 칼빈주의가 발전해 나오는 근원이거나 뿌리에 해당하는 교리가 결코 아니다.¹⁰⁾ 언약 신학이라는 새로운 개혁 신학의 흐름이 독일 남부 지역과 스위스 자치 도시에서 발전되었는데 예정론 중심의 논리와 체계적 전개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면서 부드러운 구원의 교리를 형성하였다. 언약 신학은 구속 계시의 점진적 발전 과정과 통일성을 주목하여 보면서, 구속 관계는 언약 관계이며, 신앙이나 경건은 이 언약 관계의 열매이자 목표라고 생각하였다.¹¹⁾

개혁 신학만의 독특한 방법론과 성격이 있다. 우선 개혁 신학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독특한 신학이다. 헤르만 바빙크는 신학의 외적인 원리로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 있어야 하고, 내적인 원리로서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믿음이라는 '거듭난 이성'이 있어야 신학의 탐구가 가능하며 일반 이성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¹²⁾ 개혁 신학은 성경을 최고의 기준과 최종의 권위로 삼는다. 인간의 이성

3) 김재성, 46-47.

4) 김재성, 36-37 참고.

5) 사도신경, 니케야 신경, 칼세돈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이 그것이다. 김재성, 37-38을 참조하라.

6) 제네바 요리 문답, 제2헬베틱스(스위스)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프랑스 갈리칸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돌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 요리 문답이 그것이다. 김재성, 39-41을 참조하라.

7) 김재성, 47.

8) 김재성, 51.

9) 김재성, 53.

10) 김재성, 55.

11) 김재성, 55-56.

적 산물인 신앙 고백, 교리, 전통, 종교적 체험 등이 성경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하지 그 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개혁 신학은 ‘성경 역사에 담긴 구원의 역사를 가장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 연구’¹³⁾하는 성경 신학이라는 독특한 관점을 매우 중요시한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게할더스 보스(Dr. Geerhardus Vos, 1862-1949)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의 점진적 전개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를 개혁 신학의 한 부분으로 새롭게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¹⁴⁾ 개혁 신학은 복음 전도의 신학이요, 선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신뢰성과 진리성을 손상시키는 잘못된 성경 이해와 역사 연구를 반박하고 교정하는 데 힘써 왔다.¹⁵⁾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엽 두 사람의 개혁 신학자가 혁신적으로 변증적인 특성을 지닌 개혁 신학의 체계를 발전시켰다. 한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시하는 영국 청교도에 뿌리를 둔 벤자민 워필드(B. B. Warfield, 1851-1921)로서, 구 프린스턴 신학을 집대성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유럽 대륙의 뿌리에서 나와 화란에서 신학의 원리를 계승 발전시킨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1837-1920)인데, 두 사람은 자연인의 진리 이해 능력의 유무에 관해 이견이 있었다.¹⁶⁾

개혁 신학의 교리사적 배경

개혁 주의 신학은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초기부터 가장 순수하며 성경적인 기독교의 신앙 전통을 계승하고, 각각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특정한 오류들로부터 진리를 지켜내고 드러냄으로써 발전하여온 방대한 신학적 체계이다.

초대 교회의 신학은 사도신경, 니케야 신경, 칼세돈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등으로 요약되어졌으며, 초대 교부들의 신학을 깊이 연구한 종교 개혁자들이 이들 신조를 기초로 하여 좀 더 체계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¹⁷⁾

특히, 어거스틴 시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이단 문제는 정리되었고, 초대 교회에서 거론된 전체적인 신앙의 체계가 세워졌으며, 그에 의해서 초기 기독교 신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¹⁸⁾ 칼빈주의는 어거스틴주의를 다시 한 번 더 정화하고 순수화시켜서 각 교리들을 재창출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⁹⁾

펠라기우스(370-435)는 영국의 수도사이자 금욕주의자로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말았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전적 무능이라는 성경적인 신학의 핵심을 주장하게 된다. 인간은 영적, 도덕적으로 죽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선한 동기에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행을 할 수 없고 오직 죄를 지을 뿐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거스틴의 신학은 일부 수도원을 통해서 보급되어 내려왔으며, 종교개혁자들은 어거스틴의 문헌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그의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독일 에르푸르트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루터는 다시 한 번 어거스틴이 발견한 사도 바울의 은총론을 재발견하였고,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값없는 구원의 도리를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칼빈은 어거스틴의 신학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받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²⁰⁾

12) 김재성, 59-60 참고.

13) 김재성, 66.

14) 김재성, 67.

15) 김재성, 69.

16) 김재성, 71-73을 참고하라.

17) 김재성, 83.

18) 김재성, 84.

19) 김재성, 83.

펠라기우스주의가 정죄를 당하자 수정된 펠라기우스주의, 즉 반 펠라기우스주의가 프랑스 고을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어거스틴도 너무나 지나치게 극단이요 펠라기우스도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원죄를 믿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절충안은 교묘한 타협의 산물로서, 후대의 로마 교회가 인간적인 행위 위주와 종교적인 노력 위주로 신앙을 타락시키는 길을 열어 놓았다.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오렌지 총회와 발렌스 종교 회의(529)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중세 신학은 반펠라기우스로 기울어 있었다.²¹⁾

대부분의 중세 후기 신학 교육 기관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74)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스콜라주의 신학은 철저히 이성 중심의 신학이다. 쾰빙글리와 칼빈을 비롯한 개혁 신학자들은 중세 말기의 스콜라주의와 과감하게 단절하였다.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며,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주도하에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확신하였다.²²⁾

종교 개혁 시대에 정립된 개혁 신학

마틴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판매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을 위해 주제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내건 상징적 사건은 그 당시에 유럽각지에서 이미 물밑에서 무르익어 오던 개혁에의 열망을 표면적으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 개혁 운동이 내건 슬로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만’이었는데, 오직(sola)은 그 자체가 계시된 진리의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에 다른 누룩들²³⁾을 섞어 넣음으로써 진리를 왜곡시키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 체계에 대한 정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진리에 대한 왜곡은 항상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다른 무엇을 첨가하고 보충하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개혁은 섞여진 모든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진리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전통을 능가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요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인간 중보자가 있을 수는 없다. 개혁자들의 일치된 목표는 신약 성경에서 보여지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설하는 일이었다고,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회의 행사나 방법이나 장식이나 절차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²⁴⁾

이 ‘오직’(sola)이라는 성경적 진리에 반하는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반종교 개혁 운동(Counter-Reformation)을 위해 소집된 트레نت 종교 회의(Council of Trent, 1545-63)에서의 선언에서 잘 드러난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기독교인의 자애로운 행동에 의해서만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²⁵⁾ 로마 카톨릭 교회 구원론의 핵심은 ‘공로’(merit)라는 단어이다.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덧붙여지는 모든 노력들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²⁶⁾

종교개혁 그룹들과 로마 카톨릭의 신학적 차이점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의를 인간의 외부로부터 전가(imputation)되어 주어진 것과 주입(infusion)되어 인간의 내부에 갖추어지는 내재적인 것으로

20) 김재성, 92.

21) 김재성, 94-95.

22) 김재성, 101-104 참조.

23) 인간의 행위, 공로, 전통, 철학 등등.

24) 김재성, 108.

25) 김재성, 111.

26) 김재성, 112.

이해하는 것에 있다. 전자는 하나님에 의해 외부로부터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의라면, 후자는 인간의 변화와 노력과 공로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의를 말한다. 전자가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하여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으로 간주되는 구원을 주장한다면, 후자는 주입된 은혜에 대한 인간의 노력과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의인으로 인정됨으로서 얻는 구원을 말한다. 전자는 구원이 하나님의 단독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말한다면, 후자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의 정도에 따라 보상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말한다.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에 기초하고 있는 사상으로서 이는 신인 협동설이요, 반펠라기우스적 신학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의롭다고 불리는 것은 인간 내부에 어떤 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부른다. 의로움이 인간 내부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로움이 인간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요,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을 돌린다는 말이다. 의로움은 결코 인간의 내적인 요소가 아니다. 최후적인 것이요, 외적인 것이며, 법정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는 거듭난 죄인의 내적으로 일어나는 의로움이 뒤따라야만 의인으로 선포된다고 주장한다.²⁷⁾

믿음의 정의에 대한 이해도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칼빈은 스콜라 신학의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의 개념을 반대한다. 칼빈은 '교황주의자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대체물로서 교회와 그 권위에 대한 감정적인 동의일 뿐'²⁸⁾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붙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을 얻는 믿음의 본질은 지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찬동의 요소와 확신에서 오는 신뢰로 이루어진다. 구원에 이르는 이러한 믿음은 카톨릭에서 강조하는 무조건적인 믿음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믿음이요, 무조건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을 숙고하고 신뢰한다.'²⁹⁾

칼빈주의 신학의 뿌리는 초대 교회 교부들의 신앙이지만, 구체적으로 기독교 교회의 뚜렷한 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등장한 것은 16세기 유럽의 스위스 여러 자치 도시에서였다. 개혁 신학은 쾰른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 북부 지역의 개혁 신학과 칼빈과 그의 후계자 베자를 통해서 스위스 남서부, 독일 남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개혁 신학의 두 부류로 형성되었다.³⁰⁾

칼빈 신학의 구조와 특징

칼빈의 신학 사상은 종교개혁 신학의 정수로서, 그 근원은 초대교부들을 거슬러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탁월한 종합과 분석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밝혀내는 탁월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어거스틴의 교리를 재발견하고 당시의 성도들을 위해서 재구성하였고, 이를 성경에서 입증하였다. 또한 그는 성경과 초대 교부들의 저술을 깊게 연구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적 오류를 개혁하고 기독교 신학의 종합적인 체계를 수립하였다.

종교 개혁을 전후한 시대에 인쇄술의 발달로 좋은 책들이 보급됨으로써 탁월한 종교개혁의 일꾼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에 틀림없다. 칼빈은 부모들의 열성 때문에 어려서부터 당대의 최고의 학문들을 섭렵할 기회를 얻게 된다. 카톨릭의 사제가 되는 과정을 밟고, 법학 수업을 하였으며 당시

27) 김재성, 124.

28) 김재성, 128.

29) 김재성, 130.

30) 김재성, 133-134 참고.

의 새로운 학문 사조였던 휴머니즘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문주의 학자 또는 저술가의 꿈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533년 11월 1일의 '예상치 못했던 회심'은 그의 인생의 행로를 뒤바꾸어 놓았다. 이듬해인 1534년 칼빈은 프랑스 남부 앙굴렘에서, 개신교 신앙을 변호하고 바른 신앙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책을 참고하여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다음해 바젤에서 마무리하여, 마침내 1539년에 초판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그 후 다섯 번의 수정 증보를 거듭하여 마침내 개혁 신학의 금자탑으로 손꼽히게 된다. 이 책을 통해서 유럽 최고의 신학자가 세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칼빈은 자신의 계획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 번 꺾이고 순종하는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차츰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의 인생행로에서 네다섯 차례의 전환점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순종함으로써 인간이 계획을 세우나 그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섭리사관을 갖게 되었다.

칼빈의 신학은 그 사상적 특징에 있어서 경건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신학적 내용의 초점은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통치를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신성의 특성과 본성들을 강조한다. 예배자의 마음가짐으로 성경이 증거 하는 바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높이고 존중한다. 그는 어거스틴이나 루터보다 훨씬 더 은총의 신학을 강조하는데 이는 그의 성경적 인간관으로부터 기인한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주셔서 보편적으로 죄를 억제하시고 세상의 문화, 과학, 의학 등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신다. 그러나 이런 은혜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주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전적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다.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생활을 목표로 하여 제네바 교회의 당회가 출교와 각종 징계 등의 강력한 권징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이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칼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네바는 개혁 교회의 구체적인 체제와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개혁 교회의 예배와 생활이 정착되었다. 그는 사회적인 구제와 봉사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집사 제도를 정착시켰다. 또한 1559년에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건물을 마련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개혁신학은 인간의 사변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정리한 성경에 충실한 학문이다. 그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충실하게 조직적으로 잘 표현하여 가르치는 데 있었다. 칼빈의 신학 방법론은 '바른 교리의 순서'를 정연하게 정리하여, 각 항목과 주제를 따라 바르게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칼빈은 신학자로서 교리적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자신이 주석가로서 성경 해석가임을 잊지 않고 이 두 가지 임무를 접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 신학과 성경 주석, 그리고 설교는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모든 칼빈의 성경 해석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일관된 견해를 표출하였다. 구약 예언서에 대한 설명에서 선지자들이 당시의 임박한 사건들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보다 의미를 확대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칼빈의 성경 해석은 성경이 쓰여진 역사적 지리적 제도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리고는 단어의 근원적인 의미를 찾는다. 어휘마다의 사전적 의미와 보통의 용례를 살펴보고 근원을 살펴서 해석한다. 그 다음에는 각 부분에서 문맥과의 연결 상황을 자세히 살핀다. 비유와 은유와 직유 등의 상징적 표현을 해석할 때는 제멋대로 상상하는 풍유적 해석도 잘못이요 지나치게 문자적으로만 매달리는 해석도 배격하였다. 구약 해석에 있어서는 모형론을 도입하는 것이 칼빈의 특징이다. 아담,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등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았으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구약을 다시 해석하였다. 그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예언, 비유, 은유, 모형, 직유, 상징적인 문학 표현 방법이 등장하는 만큼, 이것을 해석하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표

현을 찾아보는 방법이다. 그리고도 알 수 없는 구절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만 생각하였다.

칼빈의 업적은 비단 개혁 신학의 정립에만 있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개혁 교회의 제도와 법규를 정착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칼빈의 목표는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여 사회 전체를 바꾸려는데 있지 않았고, 오직 성경적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적인 예배의 회복과 제도의 개혁에 있었다. 칼빈이 교회의 권징을 위임한 당회는 목사들과 그들이 동의로 임명된 12명의 장로들(시의회들)로 구성되었다. 당회는 정통 교리를 벗어나거나 도덕 규범을 위반한 살마들을 견책하고 출교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런 책벌은 대부분 6개월 이내에 용서를 받고 해벌을 받았다. 당회는 세속적인 사법권과 견줄만한 정신적이며 영적인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칼빈은 1541년 11월 20일에 '교회 법령'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공포하였다. 여기서 그는 네 가지 직분 제도를 개혁 교회의 모범으로 확고히 정착시켰다. 즉, 목사와 교사(신학대학 교수), 장로, 집사 등 네 가지 직분론을 확립한 것이다. 이 직분들은 모두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

칼빈의 신학에는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신학이 그의 사상 전반에 스며 있기에 워필드 박사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렀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오직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는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모든 권능 있는 사역에 주목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내주하시면서 개인적인 감화와 감동을 주시며, 동시에 교회 공동체의 예배, 기도, 찬송,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실재 임재를 체험케 하시는 분이시다. 특히 성령은, 예배와 성례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교통을 가능케 하신다.

제네바 정통 신학의 승리와 쇠퇴

1564년 5월 27일 칼빈이 죽은 후, 루터파와 개혁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로마교회와 다양한 분파 그룹들 간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각 개신교 교단들과 그룹들은 스콜라주의 방법론을 동원하여 교리적으로 자신들의 교회가 정통이라는 주장을 펴게 된다. 스위스에서는 자신의 영지에서 신앙의 혼돈을 피하고자 칼빈의 친구였던 취리히의 불링거에게 개혁 신앙을 충분히 설명해 달라는 프레데릭 3세의 요청에 의해 '제2헬베틱 신앙 고백'(1566)이 작성되어 스위스의 지역 교회들에게 신앙의 표준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제네바를 중심으로 칼빈주의자들은 개혁 신학을 좀더 체계화하는 작업을 전개하였는데, 다소 모호하던 주제들을 좀 더 명료화하고, 세분화하는 작업을 통해 논리적으로 빈틈없는 구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성적인 질문들에 답하고자 신비롭고 초월적인 영역을 좀 더 면밀하게 설명하게 되는데, 이를 개혁주의 스콜라 정통 신학이라고 부른다. 이는 칼빈의 사후부터 돌트 신경이 반포되기 전까지의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엽의 종교 개혁 후기 개혁 신학의 신학적 특징이 된다.

개혁주의 스콜라 정통 신학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 바로 칼빈의 후계자인 테오도르 베자(Theodore De Beza 또는 Besze, 1519-1605)였다. 그는 매우 '체계적인 신학', '논증적인 정통 신학'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의 공로 사상이나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신인 협동설(synergism)이 틈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예정론을 강조하고, 엄격한 작정 교리를 체계화하기에 이른다. 베자가 칼빈의 신학을 이탈하여 '개혁주의 스콜라 신학'을 만들어 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정통 교리를 수호해야 했다는 점에서 그의 신학을 변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으로 인정해야 할 측면이 많다.

16세기 말과 17세기에 칼빈주의 신학을 계승한 스위스의 대표적인 신학자들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채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인물은 제네바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프랑수와 뒤르땡(1623-87)이다. 그의 신학은 18세기 미국 프린스턴의 찰스 하지 교수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예정과 선택이 개혁 교회가 공통적으로 완전히 합의한 신학의 기초라고 주장함으로써

칼빈과 베자로 이어져 내려온 정통 신학의 체계를 옹호하였다. 또한 성경의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 기원과 권위가 신적임을 확신하게 되기에 성경은 무오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는 또한 헬베틱 합의 신조를 작성하여 소뮈르 학파의 가설적 보편주의를 배척하기 위해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공동 대응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의 계승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중반부터 스위스 지성계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칼빈주의 정통 신학이 쇠퇴하기에 이른다. 특히 개혁주의의 본산이었던 제네바 아카데미는 베자의 사위인 테오도르 트론친(Theodore Tronchin, 1582-1657)에서부터 정통신학을 벗어나기 시작하여, 프랑수와 뒤르땡의 아들 장 알퐁스 뒤르땡(Jean Alfonse Turretin, 1671-1737)에 의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그는 소뮈르 학파의 영향과 네덜란드 항론파들의 사상의 영향을 입어서 개혁 교리를 강조하지 않고 자연신학의 주창자가 되었으며 이성주의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다.

프랑스 개혁 신학사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권인 제네바 아카데미와 저술의 영향으로 개혁신학이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엄청난 박해와 시련으로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프랑스 칼빈주의자들은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이는 천박하게 멸시하는 투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수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개혁신학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 프랑스 사회는 오랫동안 카톨릭의 영향과 지배하게 있었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의 카톨릭 대주교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칼빈주의 신앙의 전파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와 함께 갈등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1559년에 채택된 갈리칸 신앙고백서(Gallican Confession)는 대부분 칼빈과 베자의 숨은 지원과 도움 속에 성장한 프랑스 개신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작성되었는데, ‘이 고백서는 주로 칼빈의 제네바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거의 체제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³¹⁾

프랑스 칼빈주의자들의 신앙은 책이나 학술적인 문서보다는 수난과 핍박 속에서 찾아 볼 수밖에 없다. 어린 앙리 2세의 사망 후 앙리의 아내였던 까뜨린느 드 메디치(영어식 발음은 캐터린, Catherine de' Medici, 1519-1589)와 앙리의 삼촌인 기즈 집안이 정권을 장악하고, 1562년 3월 1일 바씨에서 예배를 드리던 개신교 성도들을 학살한 사건을 필두로 30년 동안 종교 전쟁과 내전에 휩싸이게 된다.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매의 날에 대 학살 사건은 그 절정이다. 이러한 일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빈번히 되풀이 되었다. 순교자들은 온갖 핍박과 박해에도 저항하지 않았고, 무자비한 공포 속에서 죽어갔다. 심지어 개혁주의의 관련 소책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해도 화형에 처해졌다.

프랑스 개신교 신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뻬에르 드 라 라메(흔히 라틴어 이름인 라무스로 호칭됨, Pierre de la Ram, Ramus, 1515-72)를 손꼽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당시 널리 유행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논리학을 배격하고, 반스콜라주의 방법론을 제창하였다. 그에게 신학이란 객관적인 계시를 연구하기 보다는 실제 경건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운 스콜라주의는 이교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여 성경보다는 합리적인 이론을 더 우위에 내세웠기 때문에 그는 이를 버리고 가장 단순 명료한 논리 체계를 선호했다. 그러므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선호한 베자의 학문 방법론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회중교회를 선호함으로써 베자의 장로교회 체제와 충돌하였다. 라미즘이라고 불리는 그의 학문 방법론은 선풍적인 인기 속에 개신교 진영에서 거의 대부분 이를 받아들였다.

남부 독일의 개혁 신학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1) 김재성, 226.

하이델베르크를 비롯한 남부 독일의 도시들에서 종교 개혁 초기와는 달리 갈등과 대립이 점차적으로 심화되었는데 주로 성찬론에 있어서 대립이 있었다. 프레데릭 3세는 2년여 동안 고심하다가 칼빈주의 신앙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지역의 교회들은 루터파의 성례전을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루터의 소요리 문답을 좋아하고 멜랑히톤의 정신에 공감하였으며 루터파와 개혁파의 연합과 일치에 도모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로마교회의 풍습이 여전히 잔존하고 루터파 신학과 칼빈주의 신학의 대립이 일어나자, 통일된 신앙고백이 절실히 필요하였으며, 마침내 1562년에는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와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같은 젊은 신학자들에게 가장 순수하고 일관된 교리 체계를 세울 것으로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영지 내에서 신앙적인 통일을 도모하였다. 이렇게 하여 작성된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Heidelberg Catechism, 1563)이다. 이 문서가 발표되지 마자 루터파에서는 성찬론에 있어서의 개혁파와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이 문서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

1566년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프레데릭 3세는 자신이 발표한 요리 문답을 옹호하면서 매우 훌륭한 연설로 감동을 주었다. 그의 주된 논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 누구라도 이 요리 문답이 성경에 비추어서 틀린 점이 있다고 증명한다면, 나는 언제라도 수정하고 다시 고칠 용의가 있다.’³²⁾

불링거는 누구보다도 이 문서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칼빈과 베자에게 이 문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칼빈은 올레비아누스가 보내 온 라틴어 판을 평가해 달라는 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후에 자신의 예레미야 주석을 프레데릭 3세에게 헌정하였는데 이 서문을 살펴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개혁주의 권내에서 이 문서의 영향력은 막대하여 현재까지도 스위스 자치 도시 교회들과 독일이나 네덜란드 개혁 교회들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개혁과 정통 신학의 확립

개혁파 스콜라주의 정통 신학의 흐름

종교 개혁이후부터 계몽주의 사조가 등장하기까지의 기간, 즉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엽까지의 개혁 신학은 ‘스콜라주의’, ‘정통신학’, ‘스콜라적 정통 신학’ 등으로 불리 운다. ‘스콜라적’이라는 말은 이성과 철학을 사용하여 교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독특한 신학적 방법론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중세 말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차용한 형이상학적, 논리적 방법론을 채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 개혁 후기 스콜라적 정통 신학은 방법론에 있어서만 논리성과 체계적인 이성 중심의 전개 방식을 채택하였을 뿐, 내용은 여전히 종교 개혁의 신학을 따라서 발전시킨 것이었다. 이러한 정통 신학의 시발점은 1564년 존 칼빈이 서거하고, 1563년 젊은 학자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출간하는 시기로부터였으며, 1640년대부터 1700년까지는 ‘정통 신학의 전성기’로 보고 1700년에서 1790년까지는 정통 신학의 후기 시대로 규정된다.

종교개혁에 대한 대응으로 로마 카톨릭은 스페인 트렌트에서 종교 회의를 열고 강력한 ‘반종교개혁’을 진행하게 된다. 로마 카톨릭 측의 트렌트 선언에 대한 대응으로 개신교 진영에서는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충돌의 과정에서 종교개혁 1세대의 신앙을 계승하고 개신교의 정통성을 천명하는 작업을 위해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방법론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이를 스콜라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개혁파 정통 신학자들은 이성 중심의 논증에 전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세 말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 논법을 따르던 로마 카톨릭 신학의 스콜라주의와는 구별하는 의미에서 ‘개혁주의 스콜라주의’ 혹은 ‘스콜라주의적 정통 신학’이라고 부른다.

32) 김재성, 251-252.

개혁주의 정통 신학의 시발점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서 이 문서작성에 사용된 방법론이 초기 개혁파 스콜라주의로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여러 지역에 신학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르시누스는 요리 문답을 해설하면서 더욱 정교한 체계를 시도하였고, 그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후계자였던 제롬 잔키우스에 의해서 개혁 신학 내에 스콜라주의적 방법론이 확고히 정립되었다. 종교 개혁의 초기 신학은 주로 설교의 수준에서 개신교 신앙을 발표하였으나, 개혁 스콜라주의 정통 신학의 시대로 넘어 오면서 훨씬 더 길어지고 질서정연한 체계성을 갖는 특징을 지닌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교리를 보면 초기 스콜라적 정통 신학의 진술 방식을 어렵지 않게 짚어 볼 수 있다. 잔키우스는 하나님의 지혜와 예지, 의지의 자유, 불변성, 전지전능, 의, 자비하심, 사랑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간주하였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라는 저술에서 잔키우스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예정론과 연결해서 풀이하고자 노력하였다.³³⁾

스콜라주의 정통 신학의 절정기는 로마 카톨릭 측과 개신교 측의 서로의 영역을 더 확대하려는 처절한 30년 전쟁(1618-1648)이 1648년 베스트팔리아 평화 조약을 통해 종결된 후, 1640년대부터 17세기가 끝나는 무렵까지의 기간에 펼쳐진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내걸리던 1517년으로부터 13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유럽 각 지역에서 개신교의 신앙이 용납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에 이르러 많은 저술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신학적 세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초기 정통 신학자들이 거론한 주제들을 다시 명료화하고 형식과 체제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더 상세히 첨가하였다.....정통 신학의 절정기는 개신교 신학의 최종 발전 단계이자 꽃이 핀 시기로서, 18세기에 계몽철학이 등장하여 신학의 체계를 완전히 철학적 사고에 의존하게 되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논쟁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발전시켰다. 1640년경에는 돌트총회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거의 사라지고 그들이 훈련시켜서 배출한 제자들과 후계자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여 신앙 고백적인 조합을 시도하면서 스콜라적인 언어로 교의학을 체계화시켰다. 개혁주의 교회가 체계적인 신학을 갖추게 된 것으로 바로 이때로서 1700년이 되기까지 정통 신학의 최종 발전이 이루어졌다.'³⁴⁾

후기 스콜라 정통 신학의 기간(1700-1739)에는 교의학이 모든 신학의 중심에 서고, 교리 중심의 성경 해석이 압도적이 되었으나, 경건주의자들의 도전에 밀리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교리적 무관심과 이성주의가 압도하게 됨으로써 그 영향력이 퇴조하게 된다. 개혁파 정통 신학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을 때, 독일에서는 루터파 교회에 팽배한 방대한 귀족 문화에 대한 반발로 경건주의 운동이 필립 야콥 쉬페너와 아우구스트 페르만 프랑케의 선도 하에 등장하게 된다.

경건주의는 신앙의 생활화와 교리의 실제적 적용을 강조하면서 스콜라적인 신학에 비판을 가하였다. 교리에 무관심한 학자들과 힘을 합쳐서, 경건주의자들은 정통 신학이 경건을 상세한 해설과 교리적 체계로 바꾸어 놓았다고 보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시에 상당히 호응을 얻었던 교리에 대한 무관심주의는 일부 신학자들이 교리의 차이에 대해서 매우 관용적이고 자유스러운 견해를 발표함으로써 '라티튜디네리언-이즘' (latitudinarianism, 범교파주의)이 더욱 확산되었다.³⁵⁾

그러나 경건주의 운동은 개인의 주관에 빠질 위험과 내세 지향적이며, 분리주의적인 요소가 있었으며, 금욕적이자, 반율법적이며, 반지성적인 위험성이 있었다. 경건주의는 정확한 교리와 신학의 정립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갱신에 초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모습은 경건의 정신에 항상 부합하는

33) 김재성, 303-304.

34) 김재성, 315-317.

35) 김재성, 326.

것은 아니었다. 계몽주의 확산으로 18세기 전반에 이르면 경건주의 운동도 역시 밀려나게 되었다.³⁶⁾

돌트 총회와 알미니안주의

네덜란드 저지대 연합 국가의 종교 개혁은 루터의 영향을 크게 입었으며 쾰빙글리의 성찬 상징설, 그리고 상당수는 메노 시몬(Menno Simons, 1496-1561)을 중심으로 한 재세례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가 국가 전체로 확산되어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제네바와 같이 네덜란드 개혁 교회가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침과 동시에 강력한 교회의 권징을 실시함으로써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네덜란드 지역에서 가장 먼저 나온 문서로서 드 브레(Guido De Bres, 1522-67)가 로마 카톨릭 군주에게 개신교인들이 폭도들이나 반란군들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임을 변호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두 가지 특별한 내용이 핵심 사항으로 담겨 있다. 하나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정리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하려 했던 작성 배경에는 재세례파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서 순수한 개혁 신앙을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 . . 칼빈의 신학을 계승한 프랑스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 이 문서가 정립됨으로써, 개혁주의 기독교의 성경적 특징을 밝히고, 국가 체제를 부정해서 재세례파와는 차별을 시도하였다.³⁷⁾

야콥 알미니우스(Jacob Arminius, 1560-1609)가 성장하면서 접한 개혁 신학은 라이덴 대학교에서 한창 ‘스콜라주의 정통 신학’이 정착되고 발전되던 시기였다. 처음에는 알미니우스도 열렬한 칼빈주의자였으나, 디크 볼케르트 쿠른헤르트(Dirk Vokerts Coornhert, 1522-1590)와의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공격에 대항하는 논쟁 과정에서, 종래의 정통 신앙이 가진 논리로는 합리적인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설득하거나 변호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이 배워 온 개혁 신학을 재점검하고 다시 평가하며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신학 배경은 에라스무스의 기독교 휴머니즘, 카스텔리오등의 유니테리언파, 소시누스와 같은 재세례파, 그리고 널리 퍼져 있던 로마 카톨릭 신학 등 각종 사상이 혼합되어 있다.³⁸⁾ 아르미니우스는 두 가지 입장에서 칼빈주의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교리문제로 예정에 관한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국가와 교회에 대한 관계문제였다.³⁹⁾ 그는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기초를 둔 선택설을 부정하였다. 또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믿음(예지 예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모든 저술은 혼란을 불러 일으켰으나, 일부 제자들과 목회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칼빈주의 정통 신학의 계승자였으며 알미니우스를 라이덴 대학교 교수직에 받아들인 신학자였던 프란시스 고마루스(Francis Gomarus, 1563-1641)와의 논쟁이 최고조에 달할 때에 사망하였다.

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나돌던 소책자들이나 팜플렛을 살펴보면 알미니우스파가 절대로 소수가 아니었다는 판단을 갖게 한다. 알미니우스파들의 주위에는 그들을 배려하고 보호해주는 정치적인 세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와 프리슬랜드 지방 봉건 영주이던 얀 반 올덴바르네벨트(John van Oldenbarneveltdt)가 항의(론)파들⁴⁰⁾의 편에 서서, 신학적인 관용과 종교적인 아량을 베풀라고 호소하였

36) 김재성, 324.

37) 김재성, 344-345.

38) 김재성, 353.

39)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부산:고신대학교 출판부, 2007), 55.

40) 아르미니우스가 사망한 후 그의 제자들은 화란정부에 아르미니우스가 가르친 교리에 기초하여 화란 교회의 신조(네덜란드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에 기초한 교리표준)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

다. 향론파들은 칼빈주의 정통 신학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 쥐리히의 쾰빙글리처럼, 세속 정부가 교회를 통치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당시 유럽의 세속 정권은 끊임없이 교회의 일에 관여하고 있었고 돌트 총회 역시 세속 정권이 회의를 승낙해서 소집되었으며, 결정을 인정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1606년, 알미니우스파에서 전국 총회를 소집하여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을 갱신하자는 청원을 세속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1616년 이후로 늘어난 반향론파가 점차 여러 지역의 호응자들을 규합하여 국가 전체 개혁교회 총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였으며, 결국 전국 총회가 1618년 11월 13일에 돌트에서 모였다. 여기에는 35명의 목사와 21명이 장로, 5명의 신학교수가 참가했고, 18명은 세속 정권의 대표로서 참여했다. 외국에서 온 대표들도 모두 28명이었다. 돌트 총회는 칼빈주의자들의 국제적인 첫 회합이었다.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까지 154 차례의 회합을 가졌다. 향의파들은 공식적인 교회의 대표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은 처음부터 마치 죄수나 이단자와 같이 인식되었고 토론은 전혀 공개된 형식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신학의 신봉자들로서 불러나온 것이었다.

1619년 4월 23일, 다섯 항목의 핵심 신조⁴¹⁾를 결정하고, 참가자 전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청취하기 시작했다. 결국 총회는 향의파들을 모든 지역에서 완전히 면직시키기로 결정하였고 모두 200명의 목사들이 해임되었다. 향의파 목사들을 동정하던 사람들은 세속 정부에서 강력하게 총회 결정을 뒷받침하게 되자 모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80명의 알미니안파 목사들은 돌트 신경에 서명을 거부했으며 그들에게는 모두 추방이 결정되었고 돌트 총회의 결과에 따라서 향의파들은 '평소의 절반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 침묵'하며 보내든지, 아니면 '추방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했다.

청교도 신학

영국의 칼빈주의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개혁 신학의 황금 광맥'을 형성하였다. 잉글랜드 지방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신대륙인 아메리카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과 경건한 성도들이 주도한 교회의 청결 운동을 퓨리탄(puritans) 또는 '청교도'라고 부른다. 문헌상으로 볼 때 '청교도'라는 말이 맨 처음 사용된 것은 1564년 경인데, 이는 영국의 성공회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인 요소들'과 '교황 체제'를 거부하고자 노력하던 개신교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청교도들의 공통분모는 종교 개혁이 시작된 교회를 보다 철저히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청교도의 신앙은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서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계시로 받아들여졌으며, 모든 권위의 완벽한 근거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성경을 따라 예배와 성례 등에 있어서 중세의 성직 제도와 미신적인 모든 것들을 거부하였으며 철저히 제거하였다. 또한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일이 과거 신부들의 임무였던 행사의 집례나 행정, 동료들을 감독하는 것, 혹은 교구 내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청교도들의 교회 개혁은 대륙의 종교 개혁자들, 특히 존 칼빈의 신학 체계에 광범위하게 의존하였으며, 이는 테오도르 베자 시대에 제네바를 다녀온 지도자들, 특히 케임브리지 칼빈주의자들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다.

청교도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순결한 교회에 대한 열원이요, 둘째는 하나님과 선택받는 자들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한 확신이며, 셋째는 기독교화된 사회의

했는데 이것을 아르미니안파의 향의(Remonstrans)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향의자들(향의파, 향론파, Remonstrants)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이상규, 56).

41)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에 반대한 다섯 가지 신조로서,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제한적 구속(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Preserverance of the Saints)의 첫 글자를 따서 'TULIP 교리'라고도 불린다.

건설이었다. 이러한 사상은 대륙의 종교 개혁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된 것으로서, 청교도 운동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이상형으로 간직하고 전개된 교회의 개혁 운동이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생활 갱신 운동이었다.⁴²⁾

청교도들은 교회론에 대한 이견 때문에 성공회 혹은 국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파로 나뉘어졌다. 영국의 종교 개혁의 전개에 따라서 교회와 정치는 서로 뒤엉켜서 격변하였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집단들이 형성되었다. 청교도들이 독특하게 보여준 특징적인 신앙은 무엇보다도 순결한 교회에 대한 소망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하에 놓여 있는 영국 성공회에 있어서, 그들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청산하고 보다 철저하게 개혁 신학을 적용하고자 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남아 있던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흔적을 완전히 청산하고, 불신자들마저 뒤섞여 있는 회원권을 분명히 가려내고자 하였다.

청교도 신앙 운동의 기원을 살펴보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사람의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청교도 신학은 유럽 대륙의 개혁 신학에 뿌리를 내리고서 발전된 것이다. 제네바의 칼빈과 베자 외에도, 피터 마터 버미글리의 '총론'이 영어로 번역되어서 엘리자베스 통치 기간 동안 깊은 영향을 미쳤다. 불링거의 영향력도 상당하였으니, 기독교 군주들의 신앙적인 역할에 대한 그의 견해는 영국 청교도들에게 그대로 반영되었다. 마치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듯이, 자유와 탄압의 격변기에 살면서 혹독한 핍박 속에서 형성되었던 청교도 신학은 이처럼 다양한 자양분을 먹고 형성되었다.

영국 교회는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와 결별하게 되었고 그의 외아들 에드워드 6세가 1547년 즉위한 후부터 1553년 사망하기까지 개혁 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어린 왕은 소머셋공의 섭정 아래서 개신교 왕국을 만드는 데 협조하였고,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 주어서 개신교 설교자들이 활기차게 복음을 선포하였다. 에드워드 6세가 죽기 직전에는 크랜머가 '42개 조항'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로마 카톨릭과 재세례파를 배격하는 칼빈주의적 신앙고백서였다. 그러나 이 강령은 에드워드 6세의 죽음으로 철회되고 말았다. '피에 젖은 메리'는 비운에 간 그녀의 어머니 캐더린과 헨리 8세의 이혼의 정당성을 부여했던 개신교 진영에 대한 복수에 혈안이 되어 자신의 통치 영역 내에 있던 교회를 모두 로마 카톨릭으로 복귀시켰으며, 3백여 명 이상의 개신교 측 주요 인사들이 살해당했고 8백여 명 이상이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하였다. 메리의 질병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 후에는 헨리 8세의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올랐고 영국은 다시 헨리 8세가 세운 국교회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1559년에는 통일령을 발표하여 모든 개신교를 성공회로 통합하는 작업을 서둘렀다. 다른 교회들은 모두 불허하고 압박을 가하였다. 모든 설교자들은 에드워드 6세 때 나온 '42개 조항'을 약간 변형시킨 '39개 조항'과 공동기도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했다.

'39개 조항'은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거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반율법주의자나 종말론자들 또는 영혼의 잠을 주장하는 재세례파와 보편주의자 등 과격한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절충적인 신앙 고백서로서, 이런 태도와 원리를 '중용의 도' (Via Media)라고 부른다.⁴³⁾

청교도 운동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주도한 운동으로서, 국교회에 대해 철저히 비타협적인 개신교 신앙을 주장하였는데 그들의 신학 사상은 존 칼빈의 은총론과 예정론이었다. 케임브리지 대학은 제네바의 아카데미에서 수학한 후 귀국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칼빈과 베자의 가르침을 좇아 개혁주의 신학을 영국 교회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영국 국교회 제도를 거부하는 칼빈주의적인 성공회의 대표적인 중심 기관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들은 국교회의 예전의식, 행정 체계와 정치적 통일성을 거부하였으며(the Low Church) 모든 성상, 그림, 조각, 십자가

42) 김재성, 395-396.

43) 김재성, 405.

표식, 성직자들의 가운 등을 철폐하고자 노력하였다.

케임브리지 칼빈주의자들의 특징은 베자와 프랑스의 피터 라무스의 영향으로 매우 조직적이면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신학을 구성하려 했다는 점과 신학적인 주제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경험주의가 대두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다.

청교도들은 교리적으로 순결한 교회를 건설하려는 공통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유럽의 영향을 다양하게 흡수한 결과로 모두가 똑같은 교회 정치 체제를 신봉하고 있지는 않았다. 청교도들은 모두가 로마 카톨릭을 대치할 만한 교회 제도로서 장로교회 체제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토마스 굿윈(Thomas Goodwin, 1600-80)은 회중교회적인 칼빈주의자로 각광을 받았던 사람으로써 십스(Richard Sibbes, 1577-1635)와 존 프레스턴(John Preston, 1587-1628)의 영향을 입었으며, 탁월한 성경 해석과 설교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작성에 참여한 지도적인 신학자로서, 정치적으로는 존 코튼(John Cotton, 1584-1652)의 설득으로 국가 단위의 감독 정치를 반대하고 독립적인 교회를 인정하도록 주장하였다.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은 청교도 신학의 최고봉으로써, 철저한 칼빈주의 저술가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그도 역시 코튼의 '천국의 열쇠'를 읽고 장로교인에서 독립 회중교회 지지자로 선회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일찍이 루터파의 개혁 운동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1559년 5월, 44세의 요한 낙스(John Knox)가 제네바로부터 귀국하여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서 강력한 개혁 운동의 힘을 촉발시켜 교회 개혁과 함께 정치 개혁까지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훌륭히 칼빈주의 개혁 신학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그의 개혁 운동은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의 사무실도 집행부도 없었으며, 통일된 종교 개혁의 강령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낙스는 장로교회를 정착시키고자 단지 4일만에 '스코틀랜드인의 신앙 고백서'(Scots Confession of Faith)를 작성하여 순수한 복음과 성경의 진리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낙스는 불과 몇 주 안에 '기독교 강요'와 개혁파 신조들을 참고하여 '제1치리서'를 기초하였고, '공동 질서의 책'을 만들었다.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면서도 1541년 칼빈이 만든 제네바 교회 법령에 기초한 완전한 개혁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아직 칼빈주의 목사들이 배출되기도 전에, 칼빈주의 정당이 결성되기도 전에, 아직 개신교 진영이 통일된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전에, 소수의 확신에 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룩한 쾌거였다.

'제1치리서'(First Book of Discipline)는 개혁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치리하는가를 다룬 것이다. 이는 계층구조를 타파하는 평등권을 확립하여 소외된 자들을 교회의 재산으로 돌보는 체제를 마련하였고, 교회는 재산을 사용하여 학교를 설립하여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보편교육론을 시행하였다. 또한 지역 교회들마다 설교를 감독하는, 마치 오늘날의 노회와 같은 모임을 갖게 하였으며, 설교는 순서대로 강해설교를 하도록 하였고, 성도들에게는 교리문답을 시행하도록 하며, 목회자들도 매주 훈련하는 모임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교와 교리 공부뿐만 아니라 매주 한 번 가정에서 모이는 교육을 통해서도 성도들의 행동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다 80년이 앞서 나온 문서로서 학문적으로는 다소 떨어지지만 훨씬 더 순수하고, 신선하며, 솔직 담백하며, 실제 상황에서 빚어낸 살아 있는 신앙을 증거하고 있다. 이 고백서는 오직 은혜에 의한 예정의 교리, 구원론과 기독교론, 참된 교회에 대한 정의, 성경의 독점적 권위 등을 주장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네바의 개혁주의 신학은 영국으로 건너가 케임브리지 칼빈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청교도 신학과 운동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의 '장로제' 체제가 국가 교회인 성공회의 '감독제' 체제와 같음

을 빚어내면서 정치 권력자들의 의향과 결정에 따라 험난한 고난과 순교, 그리고 발전과 영광을 번갈아 경험하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유럽으로부터 영국으로 건너간 개혁신앙이 이러한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과하며 비로소 활짝 피운 개혁주의 역사의 꽃이요, 열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가 서자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자,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찰스 1세라는 이름으로 잉글랜드의 왕이 된다. 이처럼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됨으로 두 나라는 정치적으로 합병하게 된다. 그러나 제임스 1세는 장로교 제도가 왕권의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 감독제를 지지하고,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로드를 앞세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도 감독제로 전환하고자 했다.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제임스보다 더 강력하게 감독교회를 고집하고 장로교회를 탄압하였다. 이렇게 되자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신앙을 지키려는 강력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1,2차 주교 전쟁에서 찰스1세의 군대에게 패배를 안긴 시민군들의 지도자는 올리버 크롬웰로써 독립파 청교도였으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나라와 교회의 건설을 염원하였다. 전쟁에서 패배한 찰스1세는 스코틀랜드에 전쟁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국회를 소집했는데, 1640년 11월 소집된 이 회의를 '장기국회'(Long Parliament)라고 부른다. 이 회의에서 국회는 영국교회에 장로교 정치 제도를 도입하고 신학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런던의 웨스트민스터교회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자 안을 의결하여, 왕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 웨스트민스터 대회(Westminster Assembly)를 개최하게 된다.⁴⁴⁾ 찰스 1세와 윌리엄 로드를 처형한 의회는 올리버 크롬웰에게 왕관을 씌워주려 했지만 그는 사양하면서, 선출된 것도 아니요 국왕의 가문에서 나오지도 않은, 보호자(the Lord Protector)라는 호칭으로 불려졌다. 크롬웰이 지도하던 몇 년 동안 영국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가장 경건한 시대를 맞이하였다. 칼빈의 제네바나 낙스의 스코틀랜드와 같이, 신앙적으로 국회가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운동이 나라 전체에 퍼져 나갔으며 청교도 시대의 꽃이 피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리고 신앙 고백서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국가적인 교회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기대와 함께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과격한 종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앙의 자유는 종교적인 혼돈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성적인 해답을 추구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영국 지방마다 널리 퍼지자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기류가 여기저기서 형성되어 혼란과 갈등이 깊어졌다. 알미니안 계열의 성공회 지도자들은 주로 관용주의자들(the Latitudinarians)로 불리워지기도 했는데, 그들은 교리적인 분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종교적인 아량을 강조하여 모든 사상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였을 뿐이다. 이는 훗날, 하나님은 그저 우주와 인간을 창조만 하셨고 그 후에는 법칙에 따라서 운행된다는, 자연신론(Deism)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⁴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신학적으로 매우 조직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상이한 것은 배제하고 정확하고도 자세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전에 나온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보다 훨씬 정교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각종 급진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심사숙고했기 때문이다. 5년간에 걸쳐 1163회에 걸친 토론이 지속되는 동안 대표들이 비워 둔 지역 교회에서는 이단들이 준동하고 있었다. 총회가 모이는 기간 동안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단들의 확산은 웨스트민스터의 문서 작업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배경은 헨리 8세의 수장령의 영향에 따라서 왕권 통치 하에 교회를 지배하려는 에라스티언들의 교회론⁴⁶⁾이 있었다.

44) 이상규, 201-203 참조.

45) 김재성, 450-451.

46) 스위스의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에라스투스(Thomas Erastus, 1524-83)가 주장한 교회론으

국회는 1643년 6월 2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영국 성공회의 개혁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 노선으로 복귀하도록 기초를 제공하고자, 신학자와 목회자들을 초빙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643년 7월 1일부터 1648년 2월 22일까지 5년 6개월 동안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무려 1163회의 모임을 가졌다. 여기에 초대된 151명의 대표들은 121명의 성직자들과 30명의 평신도(20명은 하원 대표, 10명은 상원 대표)로 구성되었다. 대표들은 전부 다 칼빈주의자들로서, 신앙고백과 요리 문답에 합의한 이들 참가자들은 교리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이 회의에 참석한 회원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 없었다.

1658년 크롬웰이 죽자 영국 정부는 결속력이 떨어지고 각 파의 난립이 초래되었으며, 과거 왕정 통치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났다. 이에 왕가의 혈통주의를 고집하던 왕당파는 유럽으로 피신을 가 있던 찰스 2세를 새로운 군주로 옹립함으로써 군주제가 복귀하였고, 청교도들의 복지 국가는 종지부를 찍었다. 독립교회와 회중교회 지도자들은 1658년 좀더 자유로운 신앙 고백서인 '사보이 선언'(Savoy Declaration)을 발표하였으며, 1662년에는 통일령이 발표되면서 다시 국가적인 성공회 감독 체제로 회귀하였다. 2천여 명이 넘는 청교도 목사들이 성공회로 복귀한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거대한 국가에 영향을 발휘했던 1643년부터 1658년까지 불과 15년이라는 짧은 '황금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 그러나 윌리엄과 메리가 1688년에 왕과 왕비로 등극하면서, 1662년의 '통일령'을 대체하는 관용 정책(The Act of Toleration, 1688)을 선포하면서 성공회주의자가 아닐지라도 다시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관용을 선포한 이후 상당수가 새로운 학습을 거쳐서 성공회로 복귀하였고, 독립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장로교인들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점차 영국 청교도들은 신학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관용은 핍박보다도 더 큰 분열을 야기하였으며, 교회에 주어진 자유는 신앙적인 방종의 문호를 열어주는 꼴이 되었다. 왕정복고 후에 영국 칼빈주의 청교도들은 자연신론이라는 합리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흐르고 말았다.

언약 신학

언약 신학은 16세기와 17세기에 유럽에서 발전하였으며, 테오도르 베자의 개혁주의 스콜라신학과는 계보를 달리하는 또 하나의 개혁신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비록 세밀성이나 포괄성은 떨어지는 초보적인 수준이었으나 초기 언약 사상을 주장한 신학자는 썬빙글리였다. 그 후 하인리히 불링거에 의해 기독교 신학사에서 최초로 언약을 다룬 독립적인 연구서인 '하나이며, 영원한 약속 혹은 하나님의 언약'이 출판되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하면서 개혁 신학자들로 하여금 언약이라는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만든 공로자이다. 불링거는 창세기 17장은 앞으로 올 새로운 세대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새 언약은 모든 다른 언약들의 성취로서 새로이 맺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언약의 본질에 있어서 '쌍무적 성격을 새롭게 추가하고 인간의 완전한 책임 의식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연히 드러내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에 반해 하나님에게 일관되게 의존적인 언약의 편무적 행위를 강조하였다.

구속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약들은 단 하나의 은혜 언약을 시대마다 적합하게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단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고 그 가운데 언약의 조건적 성격과 쌍무적 관계가 들어 있지만, 조건적 요소들은 은혜 안에 포괄적으로 수용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였다...칼빈의 경우, 언약은 선포되고 발표되는 것일 뿐이지 인간들에게 강요되거나 준수하라고 간청할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칼빈에게서도 언약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에게 조

로서, 교회는 국가의 권위아래서 감독을 받고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교회의 문제든 세속적인 문제든 세속적인 정치 문제든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원리이다(김재성, 452-453).

건적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바, 언약 백성들에게는 신실함에 대한 요구와 순종에의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진다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칼빈의 성례관에서 이런 인간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자신을 언약이 준수자로서 하나님께 묶어놓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칼빈과 불링거는 둘 다 언약이라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방법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위를 다룸에 있어서 강조점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다.⁴⁷⁾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였던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에 의해서 언약 신학은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는데, 그는 점차 발전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가르쳤으며, 이 언약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졌음을 가르쳤다. 우리의 대표이자,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과 맺어진 것이다.

이른바 대표 언약설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인류의 대표적인 머리로 삼으셨다....타락한 후에, 구원은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게 하시고 속죄케 하는 믿는 자들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은혜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는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으나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모든 사람은 행위 언약의 의무 아래 있으나, 선택된 믿는 자들은 은혜 언약 아래 있다. 그로 인해서 행위 언약의 조항들을 의무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헌신된 생활이 가능하게 하신다.⁴⁸⁾

베자의 개혁주의 스콜라신학에 영향을 입은 잉글랜드 케임브리지 칼빈주의자들은 동시대의 독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나온 ‘대표 신학’ 혹은 ‘언약 신학’이라고 불리는 사상과 서로 합류하게 된다. 케임브리지의 퍼킨스나 에임즈, 그리고 존 프레스톤 등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럽 대륙에서도 프란시스 고마루스나 프랑수아 뒤르뎡, 제임스 여셔 감독 등이 언약 신학을 옹호하며 가르쳤다.

17세기 언약 신학이 최고의 정점에 도달한 것은 헤르만 윗시우스(Herman Witsius, 1636-1708)이다. 윗시우스는 베자의 스콜라주의적인 ‘높은 칼빈주의’와 ‘대표언약’ 사상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탁월한 언약 신학자로 손꼽힌다.

미국에서는 존 코튼과 피터 벌케레이에 의해서 초기 이민자들에게 언약 사상이 보급되었으며, 18세기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좀 더 강력하게 발전되었다. 19세기에는 찰스 핫지의 조직 신학을 통해서 언약 신학과 제네바의 뒤르뎡의 신학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20세기에는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통해 ‘대표주의’ 언약 신학의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아더 핑크가 이런 관점으로 광범위한 저술 활동을 전개하였다.

모든 인간은 죽어야 마땅한 언약의 파기자로 태어난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도덕적인 율법을 지키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양심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한다. 그것은 행위 언약의 실패를 상기시켜주고, 인간은 모두 다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에서도 열심히 선포되어야 한다. 행위언약은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절정에 도달하였다. 모든 인간은 본성에 의해서 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고 태어난다. 인간은 이런 명령을 누구나 조금이라도 깨닫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런 계명을 온전히 준수한 사람은 없다.⁴⁹⁾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언약 신학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부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이다. 언약 신학은 16세기 종교 개혁 신학을 이어받은 체계이지만 세대주의 신학의 뿌리는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의 분파적인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의 천년 왕국 사상에서 찾을 수가 있다. 태생배경에서부터 언약신학과 세대주의는 매우 다른 신학 구조를 갖고 있다. 세대주의자들의 대부

47) 김재성, 487-488.

48) 김재성, 493-494.

49) 김재성, 506.

인 존 넬슨 다비(John Nelson Darby, 1800-1882)를 비롯한 초기 지도자들은 유럽에서 서로 각각의 체계를 세우며 갈라지다가, 세대의 구별을 엄격히 나누는 제자 스코필드(C. I. Scofield, 1843-1921)가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에서 크게 호응을 얻었다. 언약신학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를 프린스턴 신학교 찰스 하지 교수라고 한다면, 달라스 신학교의 설립자이자, 스코필드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채퍼(Louis S. Chafer, 1871-1952)의 조직신학을 세대주의 신학의 총체적인 요약이라고 볼 수 있다.

높은 칼빈주의

16세기 유럽 종교 개혁에서 비롯된 신앙 고백적 칼빈주의는 중요한 신앙 개요에 대한 윤곽을 남겨놓았으나 다음 세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개혁자들이 다루려 하지 않았던 주제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되고, 보다 체계적이며 세밀한 해설에 주력하게 됨으로서 초기 개혁 신학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다양성⁵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을 두 가지 중요한 흐름으로 혹은 특정한 부류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높은 칼빈주의'(High Calvinism)와 '낮은 칼빈주의'(Low Calvinism)이다. 종교 개혁 후기 상황 속에서 '높은'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반면, '낮은'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이 둘은 칼빈주의 신학의 도도한 물줄기를 형성하면서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하였다. 칼빈주의 진영 내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칼빈주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김재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러한 두 부류에 대한 분석은 개혁 신학의 바른 전통을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과거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면서 크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요소들이다. 모든 칼빈주의자들이 동의하는 통합된 신학 체계와 신앙 공통 분모는 분명히 강조되고 지켜져야만 한다. 하지만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신학자들이 그 중요한 공통 분모를 지켜나가면서 그저 전해 내려온 몇 가지 신학 내용만을 암송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 속에 수없이 다양한 칼빈주의자들의 신학 사상이 발전되어 나온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바르게 평가하여, 앞으로 전개될 세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⁵¹⁾

제네바의 베자의 신학은 타락 전 선택설에서 형성되었는데, 잉글랜드 케임브리지로 전파되어 윌리엄 퍼킨스와 윌리엄 에임스가 이를 널리 가르쳤으며, 네덜란드에서 프란시스 고마루스와 요한네스 마코비우스가 채택하였고 발전시켰다. 17세기 중반에는 새뮤얼 러더포드, 토마스 쿤윈 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주도한 칼빈주의자들이 받아들였고 가르쳤다. 후에 미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코넬리우스 반틸, 고든 클락, 아더 핑크 등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5% 정도만이 지지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베자를 필두로 한 타락 전 선택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가르쳐지게 된 것은 당시에 알미니안주의가 널리 퍼지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강조점을 뒤야 할 상황적 필요성이 있었음을 공감하고 인정해야 한다. 신학은 시대와 상황의 산물로서, 당시 알미니안을 반박하고 성경적인 신학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도 개입할 수 없는 신학 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면 본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에 관한 문제는 16세기말과 17세기 유럽 개혁 신학자들의 논쟁점이었다. '높은' 칼빈주의자들은 확신이란 믿음의 반사 작용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확신이 오는 것이기에 믿음과는 달리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믿음과 함께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칼빈에게 확신이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려 했을 것이다. 베자에 따르면 확신이 없으면 어떤 행동을 통

50) 칼빈주의 진영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부류들에 대해서는 김재성, 527의 표를 참조하라.

51) 김재성, 527.

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격려하는 반면에, 칼빈에 따르면 사람이 믿음을 얻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기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칼빈은 성도들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며, 그리고 난 후에 선택받은 사실을 알게 되고, 나중에 속죄에 대해서 감격한다는 순서를 갖고 있다. 반면에 '높은' 칼빈주의자들은 그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하였다.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어떤 증거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다음에 선택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되어진다.

낮은 칼빈주의:아미랄디즘(Amyraldism)

프랑스 소쉬르 신학교 교수인 모와즈 아미로(1596-1664, 라틴어로는 '모세스 아미랄두스' Moses Amyraldus 혹은 Moise Amyraut, 영어권에서는 '아미라웃'이라고 부름)는 '낮은' 칼빈주의를 창시한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소위 아미랄디즘으로 불리우는 학파의 가장 영향력있는 신학자였다. 당시에 '높은' 칼빈주의에 대립적인 그룹을 통칭하여 아미랄드파로 통칭하기도 한다. 그는 누구보다도 칼빈을 철저히 존중하고 따랐던 칼빈주의자였다. 하지만 그는 당대에 널리 퍼져 있던 '높은' 칼빈주의자들의 신학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졌다. 차갑고 학식 위주로 치달고 있어서 스콜라주의적이며, 칼빈의 따뜻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칼빈의 칼빈주의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면서 칼빈주의와 루터파를 재결합시키고 싶었다. 그가 보기에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학을 전개하여 형이상학적이어서 너무 높이 올라가 있고, 루터파는 인간 중심적으로 너무 낮게 내려가 있다고 느꼈다. 따라서 그는 참된 종교 개혁의 균형 감각을 잃지 말고 중도에서 통합할 것을 주장하였다.

문제가 된 그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보편 은총론(속죄론) 때문이었다. 그의 신학 이론 가운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가설적 보편주의'라는 학설이었다. 아미로는 구원을 위한 준비는 보편적이지만, 적용은 특별한 자들에게 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알미니안의 속죄론과 똑같은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그 적용만은 소수 선택자들에게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유효성을 과소평가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교수로 사역한 프랑수아 뒤르맹을 필두로 여러 교수들이 베자의 신학을 고수하는 입장에서서 아미랄디즘의 가설적 보편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엄격하게 제한 속죄를 고수하였다. 1637년 알렝송에서 국가 총회가 개최되어, 아미로의 신학을 온건하게 비판하였으나, 1675년에 '스위스 일치신조'(The Formula Consensus Helvetica, 헬베티카라는 말은 스위스라는 말과 동의어임)에서는 아미랄디즘을 명쾌한 논리로 정죄하였다. 이 신조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제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물론, 그분의 보혈이 지닌 가치는 무한정하고, 충분하지만, 그분의 속죄의 의도가 원래부터 제한적이지요, 특별한 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제정되어져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중보자가 아니요, 오직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의 중보가 되신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자들의 머리가 되신다.

영국에서 넓은 의미의 칼빈주의자들 가운데, 이처럼 유독 제한 속죄에만 반대하는 몇 사람이 더 있다. 돌트 총회에 참가했던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잉글랜드 성공회 존 데이브넛나 성공회 출신으로 매우 영향력이 컸던 제임스 어셔 감독, 리처드 백스터 등이다. 리처드 백스터는 아미로의 가설적 보편 구원론을 지지한 것은 아니지만, '낮은'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새로운 주장을 펴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신율법주의'라는 것이다. 유명한 저술가 존 번연은 좀 더 폭넓은 속죄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제한 속죄론자들은 이를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칼빈주의 신학자 존 오웬은 엄격한 제한 속죄론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아미로의 보편 속죄론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데이브넛나 다른 학자들이 이중적 입장도 배격하였다.

18세기에도 제한 속죄론은 계속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잉글랜드의 아이작 왓츠나 필립 도드리지와 같은 독립 교회 지도자들이 이를 부인하였으며 아메리카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후의 신학자들 대부분이 보편속죄론을 가르쳤다. 19세기 잉글랜드의 '낮은' 칼빈주의자로는 토마스 스캇과 존 라일을 들 수 있다. 19세기 초반, 스코틀랜드에서도 제임스 모리슨, 랄프 와드로우, 존 맥클라우드 캠벨 등이 보편 속죄론을 옹호하였다. 이런 전통은 지금도 일부 신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스트롱, 티센, 밀라드 에릭슨 등이다. 일부 중요한 세대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채퍼와 라이트너도 속죄의 범위에서 제한 속죄론을 거부하고, 나머지 네 가지 돌트 신경을 인정하는(4 Point Calvinism) 사람들이다.

루터를 포함하는 모든 루터파 신학자들은 속죄의 범위에 있어서, 보편 속죄론을 믿는다. 초기 종교 개혁자들은 대부분 속죄의 범위에 대한 큰 논쟁을 하지 않았다. 속죄의 범위 문제는 돌트 신경이 작성될 무렵에 크게 부각되었고, 칼빈의 시대에는 주의 깊이 파헤쳐야 할 과제들이 따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학자들 사이에는 보편 속죄론과 제한 속죄론자가 함께 뒤섞여 있어서, 각자 자신들을 지지하는 이론을 칼빈의 글에서 추출해 내고 있는 형편이다. 분명한 것은 칼빈이 아미로와 같은 '가설적 보편 속죄'를 가르친 바는 없다는 점이다. 아미로가 선택과 유기를 받아들이고, '높은' 칼빈주의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을 보인 결과이긴 하지만, 엄격한 제한 속죄 문제로 인해서 분명히 그는 칼빈보다는 훨씬 낮은 칼빈주의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현대 칼빈주의자들의 대안은 찰스 하지와 쉐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가르쳤던 카이퍼 등이 제시한 온건한 입장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다 일반 은총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익을 준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들은 복음의 보편적인 제시를 주목하자고 말한다. 물론, 오직 속죄의 혜택들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칼빈주의자들 사이의 갈등이나 대립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달려 있다. 칼빈주의자라는 명분보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개혁 신학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믿고 고백한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요, 진정한 칼빈주의다.

나오는 말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시대마다 자연발생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진리에 대한 왜곡과 오류들을 끊임없이 교정하고,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계시의 참된 의미를 해명하는 작업은 아직도 그 과정 중에 있으며 이는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개혁 주의 신학의 펠연적 숙명인 '철저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각 시대마다 요청받게 되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지속적인 개혁은 중단하자마자 자연발생적인 오류들에 의해 잠식되고 만다는 원리를 우리는 개혁주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진리는 마치 알곡처럼 끊임없이 세심한 돌봄이 필요 할 정도로 예민하지만, 진리에 대한 왜곡은 마치 가라지처럼 자연발생적일 뿐만 아니라 자생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개혁 신학은 방대하고 깊은 성경 진리의 총만하고 완전한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다. 오늘날의 개혁 신학의 후예들에게는 선조들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소명이 주어져 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등장한 또 다른 형태의 펠라기안들과 알미니안들의 왜곡된 주장으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며, 성경의 진리를 계속적으로 보다 넓고 깊게 해명하는 작업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